

## ‘자율개선대학’ 선정, 풍악을 울려라!



▲상상마당에서 학생들이 '자축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6일, 본교 상상마당 일대에서 '개강 자축파티(이하 자축파티)'가 개최됐다. 자축파티는 지난 8월, 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파티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열리기는 했지만, 개강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학생들에게 개강이 즐거운 이벤트로 자리 잡기를 바라 자축파티를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자축파티는 ▲초청가수 버스킹 공연 ▲슈퍼스타 한성 ▲동아리 축하 공연 ▲음료수 및 맥주 파티 ▲한성인 천 원의 행복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메인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1부에서는 가수 '동경소년'과 인디밴드 '소심한 오빠들이' 무대를 꾸몄다. 2부에서는 교내 가요제인

'슈퍼스타 한성'과 '동아리 축하 공연'이 열렸다. 그중 '슈퍼스타 한성'은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기계 점수가 높게 나온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동아리 축하 공연' 시간에는 왕산악, 들불 등 교내 공연동아리들이 참여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공연 기획과 행사장 질서 유지는 총학생회 '참이' 담당했다. 이에 대해 송진기(기계 4) 총학생회장은 "자축

파티 세부 일정은 대학본부와 조율해 기획했다.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규율대를 조직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맥주 및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가 하면, 학생식당 업체 '산들푸드'는 냉모밀, 소금구이덮밥 등 일부 메뉴를 1,000원에 판매하는 '한성인 천 원의 행복'을 진행했다. 또한, 상상마당 주변에는 스테이크나 피자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설치됐다.

한편, 학생자치팀은 지난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축파티 만족도를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참가자 386명 중 84.2%가 행사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 팀원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자축파티에 대한 향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 지면안내

보도  
한성튜터링장학금  
관련 갈등 '평행선' 02

사회  
한 해 청년 4,800여 명  
귀능... 지원 정책은  
허점 투성이 03

문화  
동네방네 클래식,  
우리 같이 보러 갈래? 04



사람사  
다흥치마 입고 나빌레라,  
한복여행가 권미루 05



학술  
별자리는 어쩌다  
바뀌게 되었나 06

오피니언  
의회정, 낙산에 올라 등 07

광고  
제33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08

### 기자사령

면  
부장기자 박금정(전자 3)





**한성대신문사**  
@hansungpress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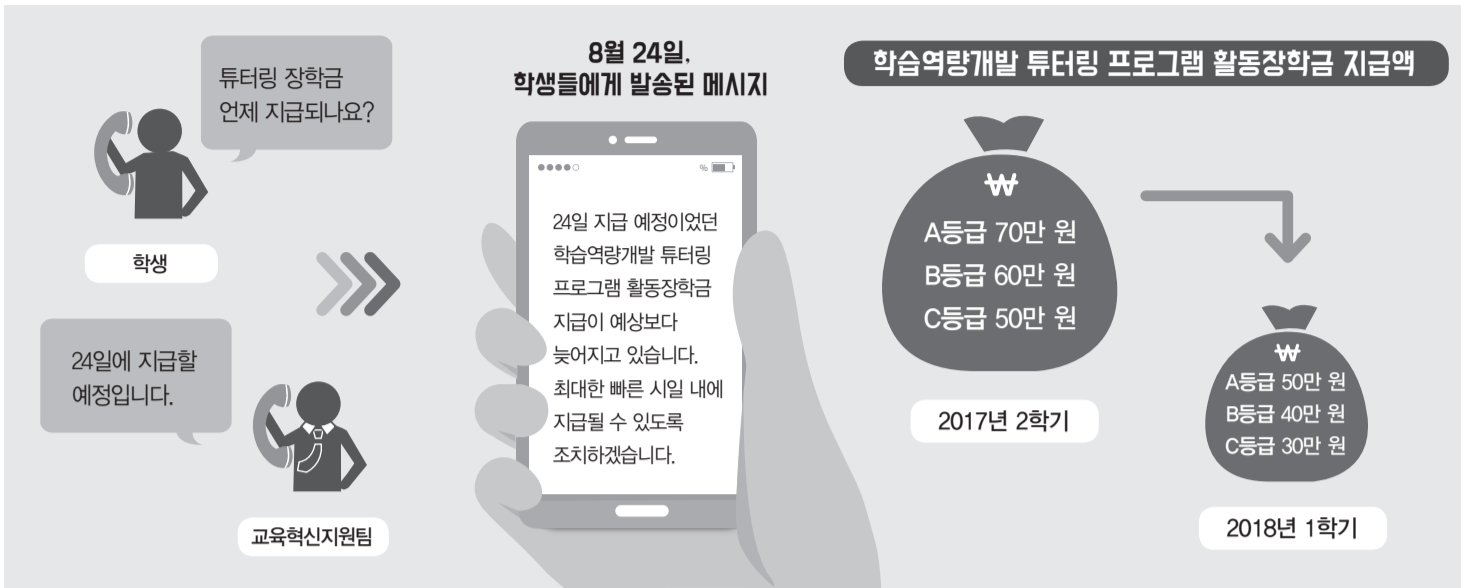


**한성대신문사**  
<http://blog.naver.com/hansungnews>



**한성대신문사**  
@hansungnews

# 한성튜터링장학금 관련 갈등 '평행선'



한성튜터링장학금 지급 지연과 액수 조정을 두고 학생들과 대학본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한성튜터링 장학금은 교육혁신지원팀이 지급하는 튜터링지원장학금 중 하나로, 전공 과목 스터디 프로그램인 '한성튜터링'에 튜터로 참여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한성튜터링 참가 학생들은 대학본부 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장학금 지급을 미뤘으며, 액수마저 줄여서 지급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학 본부는 내부 사정상 지급일을 연기한 것이며, 장학금 액수는 오리엔테이션 때 구두로 공지했다고 답변했다.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8월 24일과 28일,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 페이지에 '한성튜터링' 관련 익명 제보글이 올라온 후부터였다. 제보자들은 "학교가 장학금 지급일을 정확히 공지해 주지 않는다. 장학금 지급을 마냥 기다리지만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1학기 한성튜터링장학금은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성대신문사가 학생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도 이와 맥락을 같이 했다. 한지민(사회과학 2) 학생은 "일부 튜터들이 장학금 지급 건을 여러 차례 문의한 후에야 해당 부서에서 지급일 연기에 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지급 예정일이 8월 24일이었는 사실도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한지민 학생이 보여준 문자 메시지는 "24일 지급 예정이었던 학습역량개발 튜터링 프로그램 활동장학금(코딩라운지 포함) 및 성적향상 장학금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장재혁(교육혁신지원팀) 팀장은 "당초 8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공지했을 뿐, 정확한 장학금 지급일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장학금 지급일을 유선상으로 문의한 학생들에게 '24일쯤 입금될 것'이라고 안내했는데, 총장 해외 출장, 운영위원회 소집 지연 등으로 내부 결재가 연기돼 24일쯤 지급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성튜터링장학금은 지난 8월 30일에 튜터들에게 지급됐다.

한성튜터링장학금 금액이 줄어든 것도 논란이 됐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 A씨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장학금 액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한성튜터링장학금은 튜터가 활동 기간 동안 제출한 튜터링 보고서와 튜터의 성과를 토대로, 이들을 A-B-C 등급으로 분류한 다음, 차등 지급한다. 작년 2학기까지는 등급별 장학금이 각각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1학기부터 금액이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으로 줄어들자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학교가 장학금 금액이 줄어든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언급했다.

대학본부는 모집 당시, 학교 홈페이지에 '소정의 장학금 지급'이라고 공지했으며, 지난 3월 진행된 한성

튜터링 오리엔테이션에서 튜터들에게 이번엔 받게 될 장학금 액수를 구두로 고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학금 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장 팀장은 "한성튜터링장학금(시간당 31,250원)이 다른 튜터링지원 장학금(시간당 10,000~15,000원)보다 시간당 지급액이 많아, 타 장학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액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나무숲에 게재된 제보글을 읽은 한 학생은 댓글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장학금 지급일을 계속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 "Q&A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분류를 '장학'으로 설정하면 문의 내용이 학생장학팀으로 전달된다. 해당 부서로부터 사안을 전달받지 못해 답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타 부서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한성 #타임라인

### 총학생회 '침', 가을맞이 플리마켓 개최

총학생회 '침'(이하 총학생회)이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상상마당에서 '가을맞이 플리마켓(이하 플리마켓)'을 연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플리마켓은 지난달 19일과 20일에 운영될 예정이었다. 이에 송진기(기계 4) 총학생회장은 "자축파티 직후 연달아 플리마켓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정을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플리마켓은 학생들이 전공을 떠나 다양한 재능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기획됐다. 송 회장은 "공과대학이나 디자인대학, 예술대학 학생들은 전공 특성상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기회가 많다. 반면에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학생들이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전시함으로써 비전공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우려 한다. 이를 계기로 각자 전공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현재 플리마켓 참가 부스를 모집 중이다. 오는 7일까지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판매 및 전시 부문'에 참가할 최대 20여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 제14회 한성대학교 공학경진대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낙산관에서 제14회 한성대학교 공학경진대회가 열렸다.

본선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IT공과대학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대회 출품작을 모집했다. 그 후 공학교육개발센터가 공과대학장과 교수들에게 예비평가를 의뢰해 출품작을 취합·선별했으며, 최종적으로 2개작을 제외한 작품 37점, 논문 1편을 본선에 올렸다.

대회 1일차인 9월 2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부 심사위원 11명과 외부 심사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24명이 출품작을 심사했다. 심사는 대회장에 전시된 작품을 보고 평가해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회 2일차인 21일에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6팀 ▲동상 7팀 ▲장려상 10팀 ▲논문 장려상 1팀이 수상했다. 이 중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과학실험 가상현실(VR) 게임 콘텐츠를 개발한 전혜원(컴공 3) 학생 외 4명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최재봉(기계전자공학부) 공과대학장은 "앞으로도 IT공과대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제28기 한성 앰버서더 OT 및 결연식 진행

지난 9월 19일, 미래관 DLC에서 제28기 한성 앰버서더(이하 앰버서더) 오리엔테이션 및 결연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앰버서더로 임명된 재학생 68명과 한국어과정을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68명, 한국어과정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재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재학생-유학생 결연식 순으로 치러졌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앰버서더 임명장 수여, 활동 소개, 향후 일정 안내

등이 이어졌다. 재학생 대표로 임명장을 받은 이상준(인문 2) 학생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과 파트너가 됐다. 파트너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돕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승천 국제교류원장은 "앰버서더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곧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굳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파트너에게 얼마든지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결연식에서는 한국어과정 각 반 담임교사와 인사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재학생-유학생 인사 및 자기소개, 친교 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선옥(사고와표현 교육과정) 교수는 "먼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재학생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유학생들도 고대하던

한국인 친구들과 드디어 만나게 됐다. 재학생과 유학생 모두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활동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오자키 아이토 유학생은 "그동안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지만 그럴만한 기회가 마땅치 않았다. 이번에 그 기회가 찾아와서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교직 이수생 대상 심성 교육 특강 열려

지난 9월 21일, 교원양성교육과정 이 미래관 ELC에서 교직과정 이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성 교육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개회사 ▲교직과정 홍보영상 시청 ▲주임교수 인사말 ▲강사 소개 ▲본 강의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본 강의에 앞서 신재홍(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수는 "교직과정 이수생들에게 임용고시 준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연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며 "교직 이수생들이 예비 교사로서 자질을 갖추게끔 하는 것도 이번 강연의 목적"이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서재복(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임용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본 강의는 성공하는 교사의 8가지 방법, 교사의 바람직한 자세, 봉급 등을 알려준 '교직에 대한

이해와 눈높이 및 심층면접 준비 요령'을 다룬 '실질적인 임용고시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학생들이 교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 동정란

**이내천(사회과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KCTA Show 2018'에서 마케팅부와 세미나의 사회를 맡았다.

**박인성(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박 교수는 지난 7월 31일 저서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을 출간했다.'

# 한 해 청년 4,800여 명 귀농... 지원 정책은 허점 투성이

청년층(30대 이하) 귀농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청년 4,788명이 귀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도시를 떠나 귀농하는 청년이 생겨나는 원인을 ▲일자리 대안으로 귀농을 고려하는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이 지니는 매력 ▲도시 생활에 따른 피로로부터 탈출하려는 목적 등으로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 대신 귀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품고 농촌으로 떠나자, 농림부는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

농림부는 청년귀농인의 초기 자본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작년 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40세 미만·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에게 초기 정착지원금 명분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을 가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귀농 필수 요소인 농지·농기계·농업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귀농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영농정착 전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한 것이다. 청년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농림부는 영농 경협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실패를 줄여주고자 ▲청년귀농 장기교육(귀농인이 농장에서 6개월간 체류하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학습) ▲귀농닥터와 1:1 상담(귀농 멘토링 프로그램)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 ▲귀농귀촌 박람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2018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다녀온 이광훈(영남대 2) 씨는 "귀농에 뜻이 있는 청년 중 대부분은 부모님이 과수업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청년들은 이미 귀농에 필요한 토지와 거주지, 농업 기술을 갖고 있다. 반면, 창업농은 기반이 없어 귀농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청년귀농 지원이 청년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30세대를 위한 농업 매거진 <헬로파머> 김현곤 대표는 "정착지원금제도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귀농인들은 농업으로 얻는 소득이 적으므로 정부 지원을 받아 농사를 지어도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조사에서도 귀농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청년귀농인이 겪는 어려움은 ▲영농기술·경험 부족(33.4%)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33.2%) ▲운영비 부족(11.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귀농인 평균 정착 자금 1억 7,703만 원과 비교하면 청년귀농인 평균 정착 자금 7,680만 원은 일반귀농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년귀농인의

농가 주택 자가 소유율도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그 원인을 '청년귀농인은 경제활동에 뛰어들지 얼마 되지 않아 농지 및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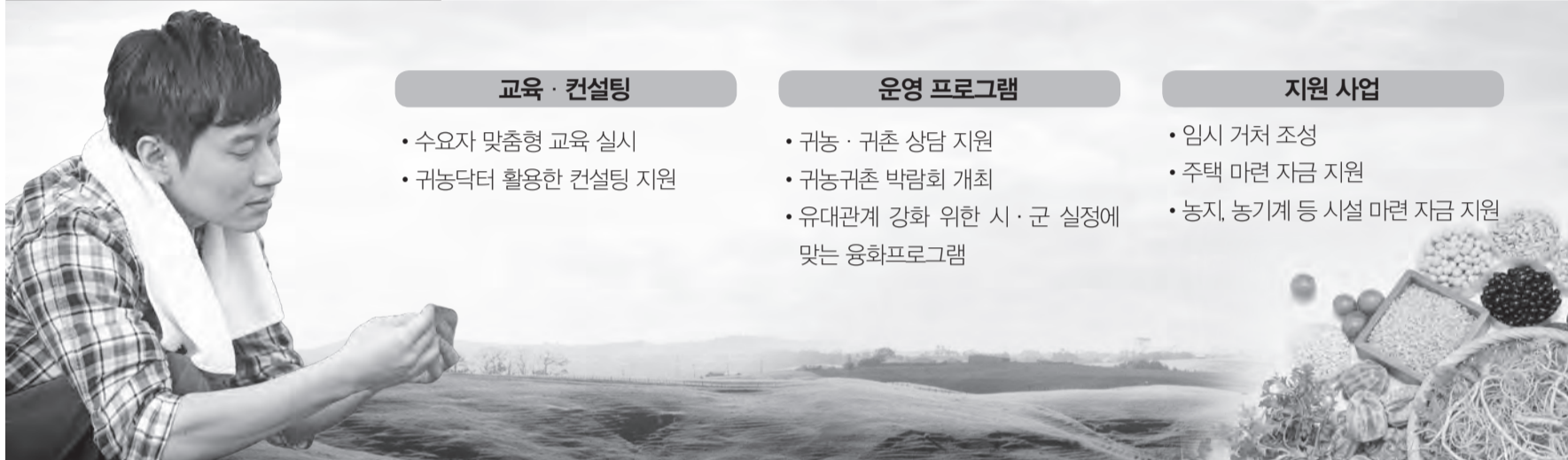
청년귀농 정책의 허점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공동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도시 출신 귀농·귀촌인 일수록 농촌에 정착(39.5%)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이주(55.1%)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농촌 출신 귀농·귀촌인은 농촌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부모의 영농 기반을 계승해 농촌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반면, 도시 출신 귀농·귀촌인은 그렇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귀농인들이 겪는 소통 단절·뒤편·젠더의식 등 농촌 정서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한 탓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다수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또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기대하고 농촌에 입성하는데, 농촌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농촌생활에 대한 낭만만 갖고 귀농해서는 곤란하다"며 "농촌이 기회의 땅인 것은 맞지만, 기회가 존재하는 만큼 위기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귀농·귀촌을 꿈꾼다면 보다 신중하게 조사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청년귀농인을 위한 정책



교육·컨설팅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li> <li>· 귀농닥터 활용한 컨설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상담 지원</li> <li>·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li> <li>· 유대관계 강화 위한 시·군 실정에 맞는 융화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 거처 조성</li> <li>· 주택 마련 자금 지원</li> <li>· 농지, 농기계 등 시설 마련 자금 지원</li> </ul>

## 플랫폼 노동자, 그들은 왜 더 배고플까

최근, 일명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고용 형태로, 공급자의 노동력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이 같은 노동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고객이 특정 앱에서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해당 앱이 그 정보를 노동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확인한 노동자가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플랫폼 기반 노동 거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사노동, 대리운전, 배달 대행부터 아기사냥 반려동물대신 보살피 주는 베이비시터·펫시터까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신제품 판매장이나 연예인 팬사인회·팬미팅에서 대신 줄을 서주는 '줄서기 대행' 등 이색 서비스도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노동 거래 서비스 앱과 앱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노동 거래 플랫폼 시장은 언뜻 보기에 호황을 맞은 듯 보인다. 노동 거래 플랫폼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수요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공급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배달 대행 업계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배달 건당 수수료도 낮아지고, 오토바이·단말기와 같은 장비 대여부터 유류비까지 노동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노연) 조사에 따르면, 배달 대행 업계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건당 평균 3,000~3,500원을 받는다. 현행 최저시급 7,530원을 보장받으려면 시간당 최소 2~3건을 배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배달 대행 업계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 강성훈(24) 씨는 "배달 대행 일에 관심 갖고 있는 지인들이 종종 문의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 일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권한다. 이 일을 해서는 최저시급마저 보장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노연은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할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한노연이 배달 대행 앱 종사자 규모를 5,000~1만 9,000명으로 추산한 연구 선례가 있지만, 그게 전부다. 대책 마련을 위해 참고할만한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앱을 활용해 모바일 노조를 설립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노동 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 브런치

### 희망인 줄 알았던 '국민연금 개편안' 들여다보니...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위)는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공청회에서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연금위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자문안(이하 자문안)'을 통해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 대책을 제시했다.

기금 고갈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공청회가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이 소비시장과 고용시장을 축소하고, 물가 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차권도 이번 자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의 기금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하려면 소득대체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는 방안을 찾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같은 날 개최된 국민연금공단 주최 토론회에서는 이근재(한국직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회장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적자가 날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며 의견을 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대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에 비례해 연금 지급 인상을 보장할 것", "보험료 인상이 생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빈곤 세대의 경우, 기초연금과 일자리 제공 등 복지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정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자문안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미래세대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갖춘 '오래 일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하기보다, 제도 운영 전반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위와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자문안을 2안 이상 마련한 다음 국회에서 결정하는 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동네방네 클래식, 우리 같이 보러 갈래?



## 〈편집자주〉

‘클래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 어렵고, 비싸고, 지루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상류층 문화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다. 문화생활은 ‘문화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 일상에 깊이 녹아들었지만, 그 범위는 대부분 영화·대중음악 등에 한정돼 있다. 어쩌다 한번, 색다른 문화를 즐겨볼까 싶어 클래식 공연에 가려 해도 관람료를 확인하고 나면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지곤 한다. 그런데 마침 가볍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오는 10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회 M-PAT 클래식 음악축제(이하 M-PAT)가 그것이다.

M-PAT은 나이·성별·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과 마포문화재단이 기획한 음악축제다.

이 축제는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이라는 큰 틀 아래, 6개 테마로 구성됐다. ▲특별한 공간, 특별한 클래식 ▲마포, 구석구석 클래식 ▲클래식 마포 관광브랜드 ▲야외 제작 오페라 ▲K-클래식 스페셜 ▲미래세대 발굴 프로젝트 등이다. 이 중 ‘야외 제작 오페라’, ‘K-클래식 스페셜’ 테마 공연은 모두 종료됐고, ‘미래세대 발굴 프로젝트’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학생은 접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클래식의 생경함과 일상공간의 익숙함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클래식’, 버스킹 콘셉트의 ‘마포, 구석구석 클래식’,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클래식 마포 관광브랜드’ 공연이 마포구 곳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 다분한 일상에 클래식을 더하다

평소 자주 드나들던 도서관, 교회, 목욕탕, 구청 등지에서 클래식 연주회가 열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특별한 공간, 특별한 클래식’은 익숙함을 넘어 때로는 지겹기까지 한 일상공간에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클래식을 더해 관객에게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클래식 연주를 배경으로 시를 낭독하는 낭독 콘서트 ‘책 읽어주는 클래식’이 진행된다.

시를 낭독하는 배우의 목소리는 음악과 혼연일체를 이룬다. 때로는 즐거웠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돌연 화를 내기도 한다. 한편의 모노 뮤지컬 같은 이 공연은 10월 11일과 16일 이틀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산성교회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클래식 공연 ‘슈만 스페셜(10월 15일)’이 열리고, 목욕탕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왈츠 공연 ‘문화목욕탕 클래식 사위(10월 24일)’가 펼쳐진다. 마포구청에서는 가곡 공연 ‘노래, 시에 물들다(10월 25일)’가 진행될 예정이다.

## 엄숙한 공연장에서 같거리로

“에이, 내 주제에 무슨 클래식이야.” 아무리 편한 공간을 무대로 한다 해도 클래식을 보려고 일부러 공연장에 찾아가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그런 당신을 위해 M-PAT이 과격적인 클래식 콘서트를 준비했다. 바로, 찾아가는 연주회 ‘마포, 구석구석 클래식’이다.

마포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 연주회는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오는 10월 18일, 마포구 야현시장에서 열리는 ‘전통시장 클래식 소품’은 시장 한 구석에서 진행된다. 엄숙함과 진지함이 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전통시장, 그 왈카지껄하고 푸근한 분위기에 취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자. 어느새 클래식 선율이 마음을 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쌍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클래식 연주회 ‘아트 인 스토페이스(story+space, 10월 17일)’와 10월 한 달간 마포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게릴라 공연 ‘클래식 버스킹’이 관객을 찾아나설 예정이다.

## 고급한 클래식? 핫한 클래식!

고급 예술 이미지가 강한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공연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홍대와 한강 인근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클래식 위드 클럽데이’와 ‘클래식 인 라이브클럽’은 홍대에서 진행된다. 홍대 특유의 쾌활한 분위기와 클래식이 더해져 얼마나 색다른 풍경이 펼쳐질지 몹시 기대가 된다.

매월 마지막 주, 홍대에서는 팔찌 하나로 다양한 인디밴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클럽데이’가 운영되는데, ‘클래식 위드 클럽데이(10월 26일)’는 기존 클럽데이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클래식 연주팀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인디밴드와 함께 공연을 선보인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홍대 대표 라이브 클럽인 롤링홀과 브이홀에서 열리는 ‘클래식 인 라이브클럽’은 10월 12일에 만나볼 수 있다.

한편, 10월 6일에는 한강 인근에 위치한 병크게스트하우스에서, 10월 13일에는 연남동에 위치한 한강게스트하우스에서



‘클래식컬 게스트하우스’가 진행된다. 루프탑과 라운지 홀을 무대로 한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낭만적인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 이건 몰랐는지? 정기자의 T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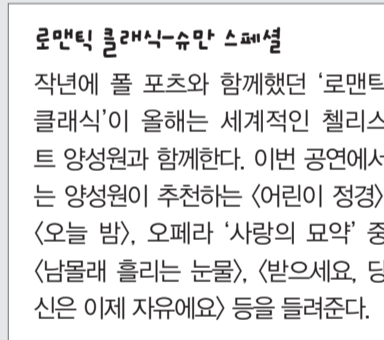
### 문화목욕탕 클래식 샤워

이 공연은 목욕탕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인 행복탕에서 진행된다. 오스트리아 관현악 앙상블 ‘카메라타 페줄트’가 무대에 올라, 작곡가 슈트라우스, 레하르 등 유명 작곡가의 대표곡을 연주한다.



### 전통시장 클래식 소품

이 공연의 무대가 되는 ‘야현시장’은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90년의 역사를 지켜온 전통시장이다. 클래식 연주를 감상하며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로맨틱 클래식-슈만 스페셜

작년에 폴 포츠와 함께했던 ‘로맨틱 클래식’이 올해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양성원이 추천하는 <어린이 정경>, <오늘 밤>,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반으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등을 들려준다.



### 책 읽어주는 클래식

도서관에서 열리는 이 클래식 음악회는 10월 11일과 16일, 각각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11일에는 세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작품을, 16일에는 드뷔시의 곡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문학작품을 낭독한다.



## 황금향 엘도라도, 베일을 벗는다

수백 년 전, 콜롬비아에는 <황금향 엘도라도> 전설이 존재할 만큼 황금이 많았다. 당시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각종 장신구나 생활용품들을 황금으로 만들어, 잉카나 마야 등 다른 중남미 문명에 뒤처지지 않는 그들의 문화를 형성했다. 콜롬비아 원주민은 황금빛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황금을 단순한 보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황금을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물로 인식했고, 그래서 황금으로 물건을 빚을 때 자연에 대한 동경과 신과 함께 하고픈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 과연 이들의 바람은 어떤 식으로 구현됐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전시 ‘황금 문명 엘도라도’를 찾았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6년 만에 개최한 중남미 문명 특별전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황금향 엘도라도> 전설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2·3·4부에서는 황금 유물을 통해 과거 콜롬비아인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부활한 엘도라도’라는 제목이 붙은 1부 전시실에서는 웅장한 음향과 대형 스크린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황금향 엘도라도> 전설을 듣고 황금에 눈이 멀어 콜롬비아를 침략한 약탈자의 욕망, 그들로부터 문명을 지켜내려는 원주민의 모습, 신에게 황금을 바치던 원주민의 사면 의식 등 콜롬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부 ‘자연과의 대화’에서는 자연을 동경하고 동물을 닮고자 했던 원주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콜롬비아 원주민은 이 마음을 황금 유물에 그대로 반영했다. <원숭이 모양

귀걸이 장식>이 대표적인 예다. 이 유물은 원형 귀걸이에 여러 개의 원숭이 장식이 부착된 형태를 하고 있다. 콜롬비아 원주민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원숭이들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를 동경한 원주민들은 원숭이 모양 귀걸이를 만들었고, 이를 착용함으로써 원숭이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같은 이유로 재규어·개구리·뱀 등의 동물을 본떠 장신구를 만들어 착용하기도 했다.

3·4부는 각각 ‘샤먼으로의 변신’과 ‘신과의 만남’을 주제로 꾸며졌다. 이곳에는 당시 샤먼(제사장)이 제사 의식에 사용했던 물품이 전시돼 있다. <박쥐모양 장식>과 <통호>가 대표적이다. <박쥐모양 장식>은 샤먼의 의식을 진행할 때 착용했던 가면이다. 원주민들은 이 같은 동물 모양 장신구를 샤먼이 착용하면 그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전수회(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는 “콜롬비아 원주민은 장신구를 착용해 동물의 능력을 얻기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식이 진행되는 순간만큼은 샤먼의 영혼이



▲황금인형 <통호>와 이를 보관했던 사람 모양의 토기

완벽하게 그 동물로 변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통호>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든 황금인형을 통칭하는데, 원주민들은 샤먼 의식 중 이 인형을 호수에 던지거나 동굴에 안치했다. 황금인형을 신에게 바치며 소원을 빌고 자신들의 안녕을 바란 것이다. 콜롬비아 원주민이 황금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황금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물건에 진심을 담아낸 콜롬비아 원주민. 때로는 자연과 동화하려는 수단으로, 때로는 신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황금을 사용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물질주의로 가득 찬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돌아본다. 이번 주말에는 ‘황금 문명 엘도라도’를 방문해, 황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다양한 동물을 본떠 만든 황금 장신구들



# 다홍치마 입고 나빌레라

## 한복여행가 권미루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터닝포인트'를 맞이한다. 일상에서 겪는 흔한 경험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다. 한복여행가로 활동하는 권미루(37)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10년 동안 장롱 속에 묻어뒀던 한복을 다시 꺼내 입은 바로 그 날이다.

그녀는 2013년, 자원봉사모임에 나가면서부터 한복을 입게 됐다. 여느 자원봉사모임과 달리, 권 씨가 가입한 모임에는 한복을 입고 활동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스레 한복을 자주 입게 됐고,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후 그녀는 한복을 직접 재단해 입기

시작했다. 치마 길이를 짧게 디자인해 활동성을 높였고, 원단을 구해 세상에 오직 한 벌뿐인 그녀만의 한복을 만들었다. 그러다 문득, '한복을 여행복으로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녀는 주저 없이 한복을 입고 여행을 떠났다.

"처음엔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으로 국내 여행을 시작했어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점차 여행 횟수를 늘려갔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전주예요. 제가 여행했던 당시에는 한복 대여점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혼자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문화해설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웃음)."

그녀의 한복여행은 국내 여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4년 2월, 그녀는 한복을 입고 이탈리아로 떠났다. 권 씨는 여행 내내 현지 날씨에 적합한 한복을 선택해 입고 다녔다. 이탈리아 북부를 여행할 때는 토끼털을 붙인 겨울 한복을 입고, 날씨가 따뜻한 남부지역을 여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얇은 봄 한복을 입었다. 그녀의 한복여행기는 SNS상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은 그녀의 열정에 불을 지폈다.

"어느 날 친구가 '한복 입고 히말라야도 갔다 와보라'며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한복을 입고도 히말라야의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을지, 등산할 때 한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할지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2014년 10월에 떠난 히말라야 여행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운 도전이었다. 인터넷에서 사전 조사를 하려 해도 한복을 입고 히말라야에 오를 역사가 없어 참고할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남들은 불가능할 거라 말했지만, 그녀는 직접 해내겠다는 오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히말라야는 고도에 따라 기온 차이가 커서, 출발할 때 사계절 한복을 모두 챙겨가야 했어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온을 위해 면 저고리를 꺼입었고, 등반할 때는 안전을 위해 속치마 안에 한복 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신었어요."

그녀는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2015년에 한복여행가를 모집해 <한복여행사진전>을 열었다.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 자금을 마련했고, '한류문화인재단'에서 후원을 받았다.

그녀는 한복을 입기 시작한 후로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복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으며 '나도 특별한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한복을 입기 전에는 남들 많이 의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성이 넘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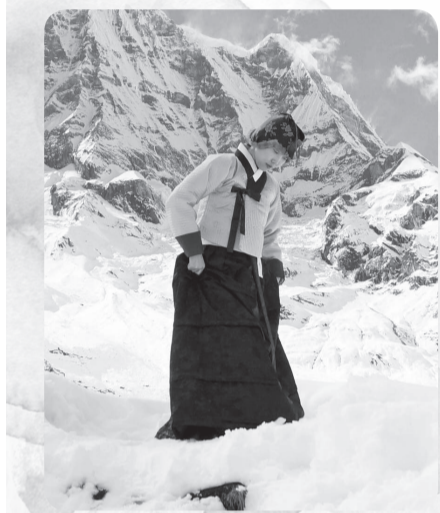


한복을 입고 낯선 사람 앞에서 서다 보니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게 됐어요.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과 트렌드를 쫓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오히려 천천히 흘러가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저는 그중 하나가 한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바람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동안 꾸려온 전통문화 프로젝트 그룹 '한복여행가'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그녀에게 '한복여행가'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그녀는 <한복여행사진전>도 그러한 이유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한복을 입고 다니며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향유하는 권미루 씨, 그녀의 한복 사랑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주될까? 그녀의 내일이 더욱 궁금해진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한복여행가 권미루 씨가 한복을 입고 히말라야에 등반한 모습이다.

# 우연을 좇아 필연으로,

## 밴드 'No Shelter' 멤버 안창영

일반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쪽을 주류, 그렇지 않은 쪽을 비주류라 칭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비주류인 무언가를 지지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는 주류·비주류를 정상·비정상과 연결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자신의 꿈을 좇아 외진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대학 한국어문학부를 졸업하고, 밴드 'No Shelter'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안창영(28) 씨다.



안 씨가 속해있는 밴드는 '하드코어 펑크'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다. 하드코어 펑크는 '펑크 록의 하위 장르로서, 빠르고 무겁고 거친 사운드가 특징이다. 그가 이 장르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순간의 우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뭔가 색다른 음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한 곡을 듣게 됐어요. 노래 제목이 궁금해 며칠 동안 찾아 헤메던 중 그 노래가 '펑크 장르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후 그는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찾아 듣고 앨범도 모았다. 대학에 입학한 후 한국어문학부 밴드 소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고, 음악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펑크 장르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공연도 꾸준히 보러 다녔다. 펑크 장르에 관심을 둔 순간부터 몇 년간 꾸준히 펑크 음악의 주변을 맴돌다 보니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평소 동경했던 하드코어 펑크 밴드 'No Shelter'로부터 합류 제의를 받은 것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음악에 대한 가치관이 기존 멤버들과 비슷한 덕분에 안 씨는 작년부터 밴드 'No Shelter'의 기타리스트로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

"저희 밴드는 거칠고 단순하지만 한데 뒤섞여 신나게 놀 수 있는 밴드와 관객이 쌓여있는 화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악 철학이요? 세상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분노, 저항 정도도 볼 수 있어요. 단, 분노하되 그 분노가 낮은 즉, 약자를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밴드에 대해 설명하는 안 씨의 얼굴엔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음악이 그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했다. 그에게 밴드란 어떤 의미인 걸까?

"저는 원래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음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을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되찾은 것 같아요. '나를 규정할 만한 것이 딱히 없었는데 밴드 활동을 하며 제 안에 평평한 반석 하나를 쌓은 느낌이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인정받았다

는 사실은 안 씨를 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단순히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시작한 밴드 활동이 그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안 씨는 공연 도중 너무 즐거워서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힘든 '마이너 중 마이너' 장르인 하드코어 펑크 음악을 하는 게 힘들진 않냐는 물음에 그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밴드 활동을 하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힘든 줄도 몰랐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음악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그런 걸까요(웃음)."

현재에 만족하며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는



▲'No Shelter'의 첫 정규 앨범 <Karma Kills>

그에게도 한 가지 욕심이 있다. 바로, 또 다른 밴드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밴드는 안 씨가 직접 결성한 밴드였으면 하는 것이다. 두 밴드에서 번갈아 활동하며 격주로 공연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단 한 주도 공연을 쉬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청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매번 그러면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니까요. 인생 길지만 젊음은 짧잖아요?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줄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나아가 꿈이 된 그것이 비주류인데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것을 좇고 있는 안창영 씨. 오늘도 내일도 환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No Shelter'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인 안창영 씨(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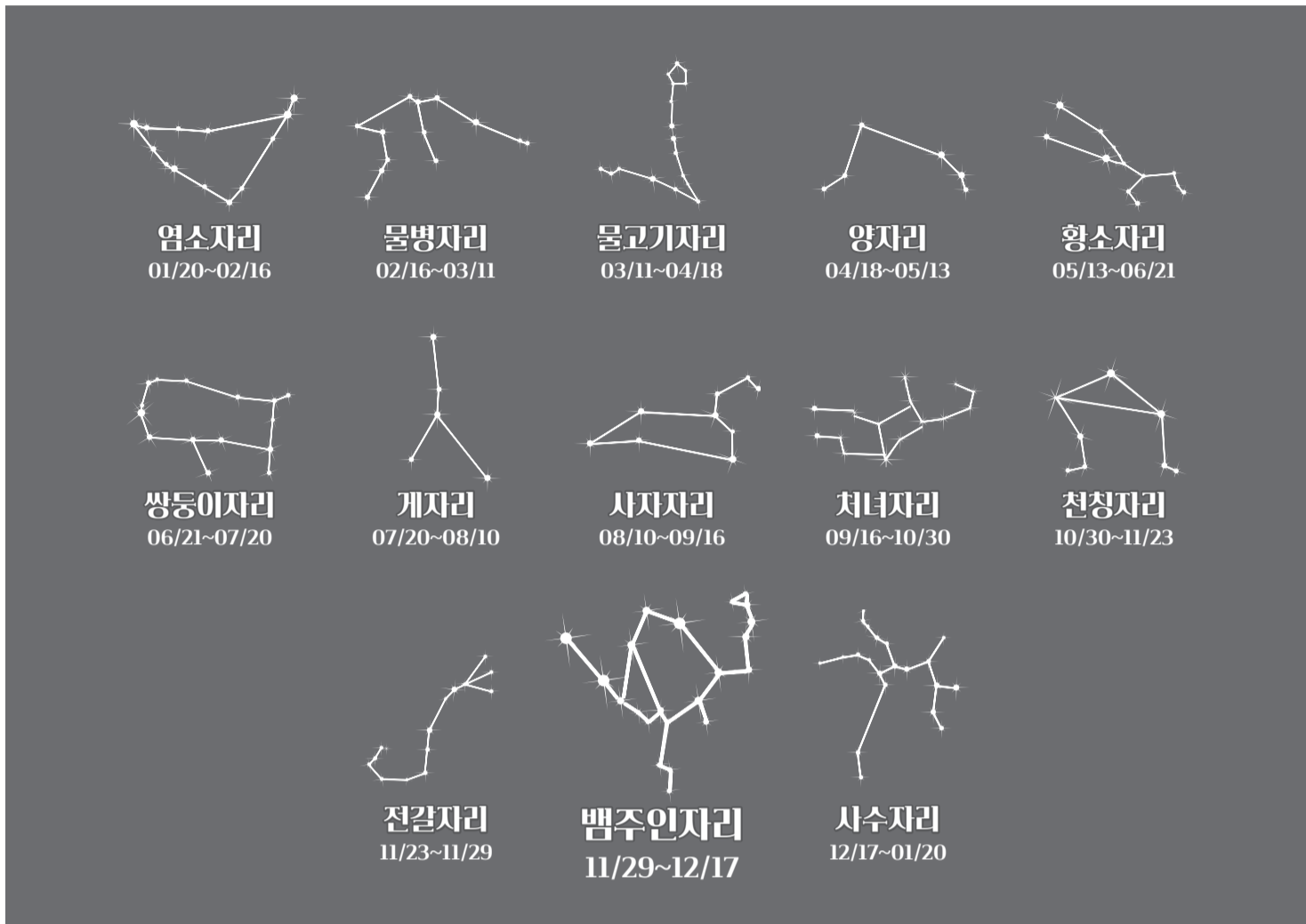
# 별자리는 어쩌다 바뀌게 되었나

## 추가된 뱀주인자리...2009년 이전 출생자는 해당 없어

당신은 자신의 별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자신의 별자리를 밤하늘에서 직접 찾아본 경험은 없을지라도, 자신의 별자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별자리는 오늘의 운세를 점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별자리 펜던트 목걸이, 별자리가 그려진 손목시계, 천장에 별을 수놓는 별자리 무드등까지... 별자리를 콘셉트로 내세운 다양한 상품이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신의 별자리를 특정 신체 부위에 영구적으로 새기는 별자리 타투도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별자리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 황도 12궁에서 유래한 별자리 운세

현재 별자리 운세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12개의 별자리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황도 12궁'에서 유래했다. 황도는 하늘에서 태양이 한 해 동안 지나가는 길을 뜻하는데,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3천 년 전 태양·달·행성이 별자리 사이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황도의 개념을 고안해냈다. 그 후 황도 각 구간에 위치한 12개 별자리에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물병, 물고기 등 사물과 동물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13개의 별자리. 뱀주인자리가 추가되면서 기존 별자리의 날짜가 약 1개월씩 뒤로 밀렸다. 단, 바뀐 별자리는 200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별자리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신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별자리로 미래를 점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점성술의 일종인 별자리 운세로 발전했다.

이에 성환경(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인류는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천체의 주기성과 규칙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고대인들은 천체를 이해하는 것이 곧, 신을 이해하는 것이라 믿었다. 이를 통해 시간의 개념을 만들었고, 그 기준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천체를 기준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동-

서양이 동일한 별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중앙아시아 바빌로니아인이 별자리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13번째 별자리가 등장하다

국제천문연맹은 지난 2009년, 기존 별자리 12개에 새로운 별자리 하나를 추가했다. 뱀주인자리(11월 29

일부터 12월 17일까지)가 그 주인공이다. 뱀주인자리는 양손에 뱀을 들고 있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을 한 별자리다. 이는 '전갈자리'와 '사수자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남쪽 하늘에서 주로 관찰된다.

뱀주인자리가 추가되자, 기존 별자리의 날짜는 약 1개월씩 뒤로 밀리게 됐다. 위 표를 보면 연속

되는 두 별자리 사이에 날짜가 앞뒤로 하루씩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별자리와 그다음 별자리가 분명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된 탓이다.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천문학에서는 주로 별자리가 시작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겹쳐 표기하고 있다.

별자리 개수가 늘었지만, 변동된 별자리는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국제천문연맹이 뱀주인자리가 추가되기 전인 2009년 이전 탄생자에게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기존 12개 별자리로 운세를 점쳐도 무방하다.

### 이 순간에도 지구는 기울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 별자리가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구가 세차운동을 하고 있어서다. 세차운동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구가 계속해서 세차운동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론상 매일 조금씩 다른 위치에서 별자리를 바라보게 된다.

성 교수는 "별자리는 약 3천 년 전에 설정됐다고 보는데, 그동안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달라졌으므로 별자리가 예전과 달리 보이는 것"이라며 "지구의 자전축은 약 26,000년에 한 번 회전할 만큼 변화가 미미하지만, 이것이 수백·수천 년 동안 축적되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전등이 깜빡이는 절연구간, 알고 보니 갈등의 산물?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객실 안 전등이 소등되며, 뱅·난방 장치가 잠시 정지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 전동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객실 안내 방송이다. 방송 직후에는 객실 내 전등과 뱅·난방 장치가 꺼졌다가 10~20초 후 다시 켜지는데, 이 상황을 처음 겪는 탑승객은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한다. 이런 현상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지하철 전동차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설치돼 있다. 그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은 광역철도와 연결돼 있어 지상과 지하를 자유롭게 오간다.

그런데 지상 노선에서는 교류 전선을, 지하 노선에서는 직류 전선을 사용하고 있어, 지상과 지하를 오갈 때 '전력 공급 방식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직류와 교류의 전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류 전선에서는 전기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반면, 교류 전선에서는 전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크기와 방향을 바꾸며 흐른다. 때문에 두 전선을 연결하려면 전선 사이에 변환기를 설치하거나, 중간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구간인 '절연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중 절연구간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절연구간을 지날 때는 전동차 전원이 꺼지는데, 이에 대해 박재우(서울교통공사 전기처) 과장은 "이 구간에서는 관성을 이용해 전동차를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전에 달리던 관성으로 일정 거리를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박 과장은 교류 방식과 직류 방식을 병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지하철을 건설하던 1970년대, 지하철 건설 방식을 두고 두 기관이 팽팽히 대립했다"고 말했다. 철도청(코레일의 전신)은 교류 방식을

주장하고, 체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는 직류 방식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당시 철도청은 교류 방식을 채택해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등의 철도선 공사를 하고 있었다. 교류로 연결하면 직류를 사용할 때보다 더 멀리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청은 철도선과 연계 운행할 서울지하철도 교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체신부는 직류 방식을 고집했다. 당시 서울지하철은 공사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를 따라 노선을 구축했는데, 간선도로 하부에는 통화선이 설치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을 교류 방식으로 운행하면 전류 영향으로 통화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체신부의 주장이었다.

또한, 이들은 터널 건설 비용도 근거로 내세웠다. 지하철을 건설할 때는 안전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직류 방식을 선택하면

교류 방식을 사용할 때보다 터널을 20~30cm가량 얇게 파도 되므로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철도청과 체신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은 체신부, 산업부 등 관계 부서에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부서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1971년, 지상철은 교류 방식으로, 지하철은 직류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절연구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절연구간은 두 부처 간의 갈등에서 탄생한 산물이다.

윤희승 기자  
yooning@gmail.com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남영역 사이에 위치한 절연구간. 이 구간에서는 전동차 전원이 차단되므로 객실 내 전등과 뱅·난방 장치가 꺼진다. 이때 전동차는 관성을 이용해 나아간다.

삼학송

누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나

최근 JTBC 드라마 <내 아이는 강남 미인>이 인기리에 종영했다. 동명의 웹툰을 실사화한 이 작품은 원작과의 싱크로율이 높아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다. <강남미인>은 <강남 의료계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듯 똑같이 만들어 낸 성형미인>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위 드라마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다뤘다.

주인공 '강미래'는 어릴 적부터 "똥똥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무시를 받아 왔다. 학창시절, 혹독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친구들에게 "못생겼다"며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그녀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성형수술을 감행한다. 드라마에서는 성형수술 이후 대학교에 입학한 그녀가 순탄치 않은 캠퍼스 라이프를 겪으며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내적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오히려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며 비판한다. 실제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지 않는데, 방송으로 인해 마치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비취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혹자는 "개인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아름다움을 좇고, 자신의 외모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도리어 사회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물론, 나는 그 의견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나 역시 외모 지상주의가 낳은 피해자였고, 또 다른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눈에 땀 정도로 피부가 하얀 편이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때때로 이웃 어른이나 학교 친구들과로부터 "서양계 혼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런 질문 끝에는 꼭 "예쁘다", "부럽다"와 같은 질투 어린 칭찬이 따라오곤 했다. 피부색이 하얗수록 예쁘다'는 사회 풍조에 따라 나도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반면, 피부색이 나보다 노랗거나 까만 사람을 보면 "못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하얀 피부로 얻어낸 외모 특수는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자외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자 하얗던 피부가 노랗게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피부가 타는 게 두려워 야외 활동을 피했고, 갈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다.

외모 지상주의의 피해자는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학교 커뮤니티 '대나무숲'에는 외모 지상주의 희생양이 된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똥똥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로부터 줄곧 "돼지"라고 놀림 당했다. 그래서 그는 학창시절, 1일 섭취량을 300kcal로 제한해 신장 160cm에 체중 40kg이 될 때까지 다이어트를 했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뤘다. 그는 체중을 감량하고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자 그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다시 살필 것이라는 공포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까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마르고 예쁘다고 해주는 사회의 기준이 미친 걸까. 모르겠다. (중략) 나는 행복한 걸까."

강예림 편집국장



등교하는 학생이 많은 오전 시간,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는 '성북02' 마을버스와 학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붐빈다. 역에서 학교까지 걸어야 한다면 언덕길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버스 모두 배차간격이 크고 그마저도 예정보다 지연되는 일이 잦아, 버스를 기다리다 지각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셔틀버스 증편은 정말 어려운 것일까? 정영아 기자

의화정 양자컴퓨터와 사이버 보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은 컴퓨터가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과거보다 편리하고 풍족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화돼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 들어 기존 컴퓨터 시스템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양자컴퓨터다. 지금까지 컴퓨터는 비트라고 하는 최소단위를 기본으로 연산이 수행됐으며, 해당 비트는 1 혹은 0만을 정보로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양자컴퓨터상에서는 최소단위가 큐비트로 정의되며, 해당 큐비트는 다양한 상태 정보를 한번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큐비트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많은 복잡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IT 공룡들은 양자컴퓨터를 생산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양자컴퓨터를 최초로 실용화하는 기업이 앞으로 컴퓨터 세계를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는 이처럼 응용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자컴퓨터가 개발될 경우, 사이버 보안을 매우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사이버 보안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양자컴퓨

터가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암호화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킹 시간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터가 도래해 양자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시점에도 안전한 암호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팀이 양자 내성 암호에 표준안을 제출했으며, 1차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표준화가 계획대로 잘 진행돼 양자컴퓨터 발명 전에 양자 내성 암호가 배포된다면, 현대인들은 보안의 위협 없이 혜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서화정(IT융합공학부) 교수

# 낙산세컷\_소문난\_잔치에\_먹을\_것\_없다

김수현(인문 2)



기자수첩 비판은 화살이 아니라 명약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상승을 토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끌어내는 정책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면 내수 활성화가 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올해 최저시급이 작년 대비 16.4%가량 인상되자, 고용주들이 인건비를 줄이고자 '알바 쪼개기'에 나섰다. 심지어는 근로시간을 줄여 계약하는 등의 꼼수도 쓰고 있다. 계속되는 우려에도 지난 8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청와대는 지난 9월 6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은 눈 감고, 귀 막고 있더니 위기에 직면해서야 정책 방향을 급히 수정한 것이다. 여당이 전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 "이전 정부가 토목 건설과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 산업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탓에 고용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지만 과거 정부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리어 현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가 했더니, 현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비판 여론에 흔들리고 남 탓을 하는 등 실망스런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의 신뢰를 재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니. 삼성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낙산에 올라 죽음이라는 말의 가벼움

언젠가 어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튜브 박막례 씨의 일화를 다룬 게시물을 봤다. 박막례 씨는 고령의 나이에 유튜브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한 영상에서 화장을 하며 특정 화장품에 관해 일화를 소개했다. 그 제품을 사러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직원에게 "이건 젊은 애들이 쓰는 거예요"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나이로 편을 가르더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댓글로 그 직원에 대해 총공격을 하고 있었다. 온갖 종류의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댓글이 내 시선을 멈추게 했다.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 '교육 받기에는 이미 그따위로 자리버렸으니 그냥 뒤지는 게 답인듯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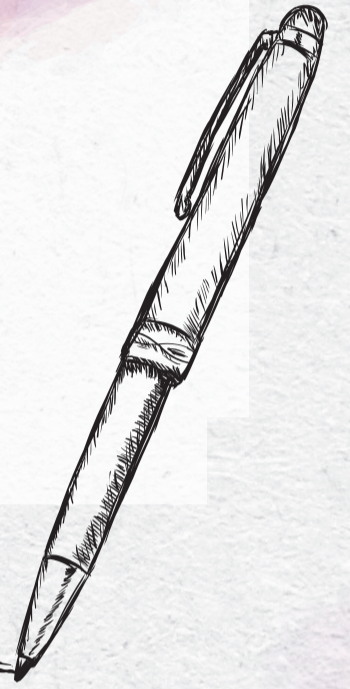
그 직원의 말은 제 판에는 손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의 실수를 악마의 악행으로만 듣고 있었다. 만약 그가 악의를 품고 그랬더라도 그게 '죽을 죄'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댓글을 쓴 사람은 그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렸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조금만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주저 없이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말을 타인에게 너무도 가볍게 쓰는 시대. 이 지나친 공격성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죽음'의 남용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갈등의 불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말을 쉽게 써버림으로써 정말로 손에, 아니 키보드에 피를 묻히게 되는 일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마법사 간달프는 골룸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프로도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마땅하다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살아있는 이들 중 많은 자가 죽어 마땅하지. 그러나 죽은 이들 중에도 마땅히 살아야 할 이들이 있어. 그렇다고 자네가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죽음의 심판을 그렇게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네.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모든 것의 끝을 볼 수는 없거든."

정영진(인문 2)

## 제33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펜을 움직여라, 당신의 감성으로"



**모집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 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식** | hansungnews@gmail.com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 응모작/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 한성대신문 제540호  
(12월 10일 발행 예정)

**시상내역** |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강예림 편집국장 010-8724-0441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